

별별신문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가 봉인가

전국 첫 '노래방도우미'조합 결성

지난 2월 6일 전남 여수지역에서 '노래방 도우미' 조합이 결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노래방 도우미들의 봉사료 인상을 위한 파업은 종종 있었지만 도우미들의 조합은 전국 첫 결성이다. 여수시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도우미 6명이 '여천상가협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전남도 설립필증, 법인등록 등 필요한 법적절차도 모두 마쳤다. 이들 6명은 도우미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상태이다. 1만원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도우미 서비스비로 받은 시간당 3만 원중 12%인 3,600원을 조합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조합은 유흥주점에 안주류 등을 공급하고 수익을 내 조합 재정에 보태고 조합운영비를 공제하고 남은 잉여금은 6개월마다 조합원들에게 배당된다.



>여천상가협동조합 여성도우미 일자리 안내 현수막(출처:노컷뉴스)

조합장을 맡은 박모씨는 여수시 학동의 유흥골목에서 10여 년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도우미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며 조합 설립을 결심했다. 박모씨에 따르면 상당수 도우미들이 이혼 등으로 가족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처지인데도 비합리적이고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보도방 업주들의 착복도 심각한 상황 이었다고 한다. 조합 설립으로 많은 여성도우미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보도방 업주들에게 불법적인 빚독촉에 시달리는 도우미들을 구제하고, 착취와 비합리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열악한 처우를 받던 노래방도우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래방도우미'조합이 결성된 것을 계기로 살펴볼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기로 하자.

노래방-보도방의 힘겨루기

보도방은 전국적으로 동마다 20개 이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뉴스통신 2012.6.22.) 보도방은 보통 보도실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노래방과 노래빠 업주에게 연락을 받으면 차량으로 도우미를 이동시켜 주고 도우미들의 봉사료 중 시간당 5,000 ~ 7,000원이란 돈을 수수료로 떼낸다. 보도실장 밑으로 도우미가 적게는 5명, 많게는 100여명에 달하며 상당수가 대포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사고 시에도 보험처리가 안되고 보도실장들이 도우미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도우미와 손님간의 2차비를 갈취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마다 연합 같은 것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도우미를 볼모 삼아 도우미봉사료 인상이나 노래방업주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보도방은 지역 상권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천안지역에서는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몰래카메라로 손님들에게 여성접대부를 합석시킨 단란주점, 노래방 등 100여 곳을 고발하자 이에 반발해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제공하지 않아 업소 영업을 마비시킨 일도 있었다.(유흥업소들 간 불법 영업에 대한 고소고발 과정에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다.)

많은 수의 노래방에서 '노래만'이 아닌 도우미들의 접대와 풀싸롱 처리 결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도방을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놓이게 하는데, 보도방이 노래방업소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알뜰히 챙기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보도방의 담합으로 도우미가 제공되지 않아 업소 영업을 마비시킬 정도라면 노래방에서 얼마나 노래방도우미의 수요가 많고, 도우미가 없으면 영업을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로 여성의 성서비스와 성매매에 대한 손님들의 욕구가 크지 알 수 있다.

눈앞의 이익, 누가 여성들의 쌈짓돈을 뺏을 것인가

전국적으로 노래방도우미 봉사료 인상을 위한 파업은 꾸준히 있어왔다. 전남 광주, 천안, 보령, 용인과 수원 등 경기도 일대, 서울 강남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횡수도 적지 않다. 이런 파업을 통해 실제적으로 수년간 시간당 2만원이었던 서비스비가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봉사료 인상에 대한 실질적 요구와 집단행동은 노래방도우미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보도방이 주도한 것으로 보도방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힘겨루기의 결과이다.

보도방 업주들끼리 조직을 결성해 시간당 봉사로 인상을 요구 하고, 인상되지 않으면 도우미를 알선하지 않는 것은 과연 노래방도우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도방의 눈물겨운 투쟁일까?

이유는 역시, 보도방의 돈벌이와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다. 보도실장이 알선하는 5 ~ 100여명의 여성에게 수수료로 떼는 금액은 사람 관리만 하는 것치고는 무시 못할 금액이고 보도방으로서는 도우미 알선이라는 든든한 협박카드를 쥐고 있으니 업소눈치를 볼 일도 없다. 한국에서 여성이 아이를 키우거나 여러 이유로 시간조절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기로 한 날의 별따기다. 겨우 찾게 되는 일자리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업무의 일자리가 태반이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탄력적인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모으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손쉽게 여성의 성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층이 탄탄하니 보도방 사업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쉽고 고수익을 보장한다. 단속이 있다 해도, 대포폰, 대포차량 등으로 추적이 어렵고 업소 현장단속시 단속반을 미행하여 단속망을 피하거나 여성들만 놔두고 꿈무늬를 빼는 경우가 허다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성매매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침묵과 용인은 지역 유지나 경찰 고위 관계자가 보도방 운영 등에 직접 참여 하게 하는 등,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도 한다. 여성을 관리해 발생하는 짝짤한 수입을 포기하는게 어디 쉬운가 말이다.

유흥업소 여성들의 진짜 권리 찾기

앞서 소개했던 노래방도우미 조합이 조합 신청시 주요사업으로 내걸었던 것은 '식당자재 공동구매'이다. 유흥업소에 공급되는 안주류 납품을 통해 조합 수익을 기대는 것이 조합의 주요사업으로 노래방 도우미 등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언론보도와 달리 이 조합의 형태는 노래방도우미가 중심이기 보다는 주방, 카운터, 서빙업 종사자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노래방도우미의 조합원 가입을 열어 놓은 상태이고 '도우미'에 대한 해석도 식당이든 어디든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본래의 조합설립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위드인뉴스 2013.2.7.)

노래방도우미에게 자행되는 폭력, 살인사건은 수없이 많다. 강호순의 연쇄 살인 피해자 7명중 3명이 노래방도우미였고 이들은 2차를 나간 모텔에서 살해당하거나 폭행에 노출되고, 성폭력, 위협,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적은 돈으로 쉽게 벗고 질편하게 노는 밝히는 나이든 여자라고 입방아를 찧고 화류계 여자중 가장 급이 낮다고 폄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는 여성인권을 담지 못하는 한계도 많지만 노래방도우미들의 조직화와 권리 찾기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준 것 때문에 '전국 첫 노래방도우미 조합 결성'은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여성들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담합행위 말고 유흥업소 여성들 스스로의 진짜 권리 찾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희망의 싹이 보인다.

올해 초 서울 청담동 룸싸롱 여성접객원들이 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노동부 탄원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일본 유흥업소의 하나인 가바쿠라(술 시중을 들고 대화를 해주는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2010년 12월 22일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가바쿠라 유니온이라 불리는 이 단체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고액 벌금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고 프리터(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집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의 암묵적인 관행들을 끊임없이 문제 삼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은 개인적으로 싸우며 맘 상하여 포기하거나, 더러워서 때려 치는 차원이 아니다.



>2011년 3월 26일 신주쿠에서 열린 가바쿠라 유니온 집회. '강압적인 업장 반대', '업계 개선', '벌금금지' 등의 구호와 피켓으로 유흥업소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

위의 사례처럼 직접적인 단체행동은 노래방도우미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힘을 가지고 부당함을 시정하고 더 나은 권리를 위해 협상 할 수 있게 한다. 프리터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가치인 '산다는 것을 폄하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는 문구는 조직화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야 할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꼭 알맞은 내용이지 싶다.[짱]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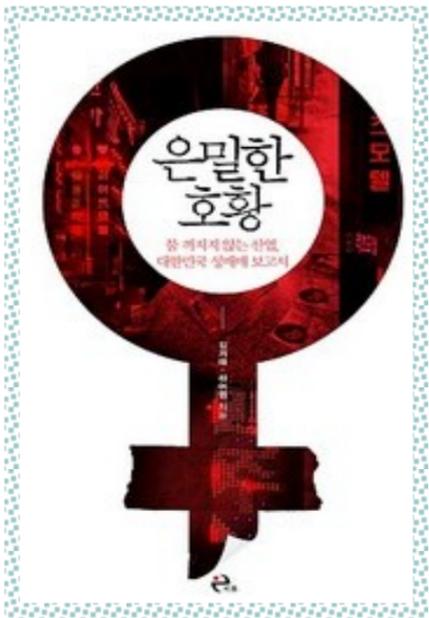


요망한 망상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거침없는 망상과 탄죽걸기!



불 꺼지지 않는 산업,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



책이 하나 나왔다.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웬일로 ‘순이(가명)씨는 열여섯살에 가출하여 청량리로 흘러 든 뒤...’로 시작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성매매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에서부터, 성구매자, 여성, 청소년, 해외, 성매매 피해자/성노동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기자가 썼다는데 실태조사 한답시고 업소 가서 서비스 받고 나온 후기를 ‘충격 르포!’라는 식으로 쓰지않은 건 좀 칭찬해줄만 하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자.

누가 강남을 먹여 살리나?

“강남을 누가 먹여 살리는지 잘 따져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강남 유흥업소 사장 A씨의 말

강남의 역삼.삼성.논현.대치동은 대규모 유흥주점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다. 약 1,400여 개 업소를 중심으로 업소 아가씨들의 생활권이 형성되어있는데 풀옵션 오피스텔과 미용실, 24시간 음식점, 사채 포함한 금융업체들이 전부 유흥업소, 더 정확하게는 언니들을 주고객으로 먹고 살고 있는 형국이다.

단속으로 한 업소가 며칠 영업을 못 하고 지역 상인들의 수입이 떨어지게 되면 경찰로 국회로 지역 주민들이 압력을 가한다. 민원은 경찰 단속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장안동 안마가 지역 주민의 민원과 경찰력이 합세해 집결지를 밀어낸 대표적 지역이라면 강남은 유흥업협회+지역 주민의 힘으로 유흥주점 집결지를 지켜내고 있는 셈이다. 강남유흥업협회가 경찰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이익단체로 힘을 키워가는 동안 강남 언니들 살림은 좀 나아지셨는지 의문이다.



>강남 유흥업소 내부

세 명에 한 명 꼴, 성구매자 이야기

2010년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성매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자들 중 한번이라도 성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 비율은 49%란다. 조사 수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 16%, 영국 뉴질랜드 7%대로 추산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뉴질랜드는 성구매/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희한한 일이다. 금지하고 있는 나라의 수치는 이렇게 낮고 불법인 나라의 성구매 비율 이리 높은 것은 대체 뭐람? 이리니 성매매특별법은 허구한날 동네북 신세다.

‘은밀한 호황’에서 성구매 남성 10명에게 물어봤다. 역시나 대부분의 시작은 군대더라. 군대 없으면 성구매 비율이 확 줄어들지도 모를 일이다. 인터뷰에 응한 오빠들의 특징은 자기가 성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데(일의 연장이다, 안 가면 이상한 놈 된다) 만난 언니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돈 쉽게 벌려는 여자’란다. 정말로 언니들 일하기 ‘쉽게’ 진상 안 떨고 말이라도 예쁘게 하고 팁도 좀 팍팍 줘들려나 모르겠다.

어떤 오빠는 ‘명품백같은걸 들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슝슝이가 커진다’고 말했는데 ‘그렇다카더라’도 아닌 저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 언니가 립에 백이라도 들고 들어간 모양이다.

-이번 호는 좀 덜 요망스러웠다. 다음 호에 정말 엄청 요망한 기사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용]

별별신문을 이용하세요~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소식, 성매매 관련 소식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겪으신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시거나 억울한 사건들을 고발해 주십시오.

고발, 사연 보낼 곳

*이메일 : eloom2003@naver.com

*휴대폰 : 010-8230-627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12 5층 ‘별별신문’ 담당자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게 주소나 직접 받기 편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별별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010-8230-6279로 연락하시거나 문자 남겨주세요.

황기자의 팔랑귀



세상은 요지경. 뭐가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황기자의 팔랑귀’ 코너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힘든 사안들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입장들을 모아 들어보려 합니다. 어허~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구나! 황희정승에 빙의 된 황기자는 두 개의 자아로 분열 중!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가락과 바닥은 황기자의 분열 된 두 자아로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입양특례법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정초부터 한국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했던 ‘입양특례법’, 들어보셨나요? 개정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개인 간의 합의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아이의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2012년 8월 5일 개정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이를 낳은 가족이 우선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출산 후 7일까지 양육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하며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아동의 유기를 야기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최근 큰 논란을 낳았는데요. 별별 신문에서는 <입양특례법>에 대해 다른 의견과 감정을 갖고 있는 가락씨와 바닥씨의 글을 실었습니다. 별별신문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양특례법> : 아이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입양법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여성과 태어난 아이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내용도 없었다. 나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이런 공백을 채워나가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입양은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과 절차 없이 개인과 개인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했다. 나중에 입양된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해도 남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와 같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이의 해외 입양은 수출 사업과 동급으로 여겨졌고, 입양되는 아이의 권리는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입양이 진행되었다. 지금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입양특례법 개정운동은 이러한 한국의 입양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입양 특례법>이 입양을 결정하는 여성들의 가족관계기록부에 출산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7일 뒤 입양을 결정할 경우, 출산기록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옮겨져 친모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은 여성의 가족 구성 권리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미혼모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편견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가족구성권을 침해해왔다. 여성이 출산,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기 힘든 현실은 국가가 사회적인 복지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개개인의 입양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입양특례법>에 적혀 있듯이 출산한 여성은 7일 간의 숙려기간동안 아이를 키우며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제도 등의 정보를 충분히 듣고, 아이와 같이 살 것인지 고민할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출산한 여성이 숙려기간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선택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 대해 친모가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아이의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할 권리를 갖는다. 여성은 자신의 출산/가족구성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선택을 충분히 숙고할 권리를 갖는다. <입양특례법>은 이와 같은 권리를 함께 말하고 있음에도 이 두 권리가 서로 대치하는 양 적어내는 한국의 몇몇 언론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가락

참고자료)

권희정, <고아로 만드는 것이 ‘아동유기’해법인가-[입양다시보기]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입양특례법 논란>, [일다], 2013/02/25

권희정, <“베이비박스”는 왜 생겨났는가?-[입양다시보기]② 혼외 출산에 대한 잔혹한 통제의 역사>, [일다], 2013/03/11

권희정, <‘입양’을 미혼모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다-[입양다시보기]③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일다], 2013/03/25

김유나,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4배, 무정한 법. 죄짓는 사회...올해 들어서만 벌써 아기 34명 유기>, [국민일보], 2013/02/17

김도현, <아동 유기 급증이 입양특례법 때문? 사실 아니다-[해외입양인, 말 걸기]34>무엇이 아동유기인가>, [프레시안], 2013/03/06

출산 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법이 필요하다.

“아이를 양육할 조건

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산은 여성을 당혹스럽게 한다.

특히 미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하고 경제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한국사회에서는 한 순간에 그 당혹감이 공포로 변한다. <입양특례법>은 그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제적인 기준에만 맞춰진 허황된 ‘법’이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입양을 결정하기 전까지 7일간의 양육 의무를 갖는다. 나는 7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출생신고를 거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여성의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다.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며 임신과 출산을 견뎌 온 여성들에게 출산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부담일 것이다.

물론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이가 입양될 경우 출산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록이 남지 않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되며 그렇게 기재된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손쉽게 남에게 공개될 수 있는지 매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를 우려하는 것이 과도한 걱정은 아니라고 본다.

나 역시 입양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적 혜택은 당연히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고도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며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일 뿐 지금의 한국은 결혼한 부부가 계획 하에 낳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힘든 국가이다. 국제적인 법의 기준, 좋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선진적인 국제법을 따를 만큼 선진적인 나라가 아니다.

요즘 <입양특례법>이 이슈가 되면서 벌써부터 또 다른 개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줄속으로 또 다른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 것이다. 누가, 어떤 이유로 기록에 남지 않는 입양을 원하는지 더욱 풍부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 출산한 여성도, 태어난 아이도 어떤 환경에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걸음들을 다각도에서 시도하면서 천천히 실현 가능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바닥

[유나]

별별신문이 **크맘** 먹고 하는 **이벤트!**

별별신문이
**휴가비를
쏟대! 쏟대! 쏟대!**



응모대상 별별신문을 받아 보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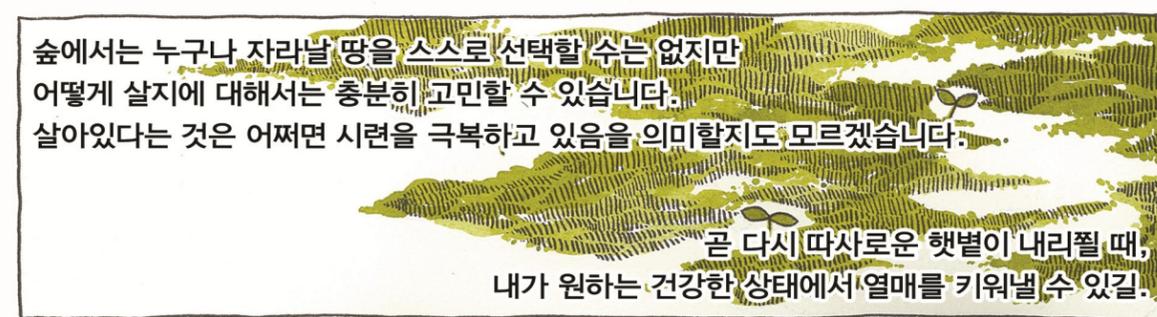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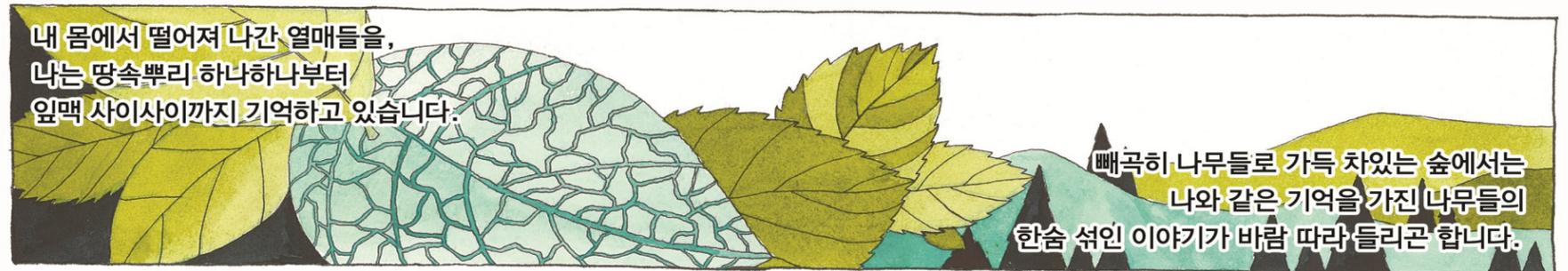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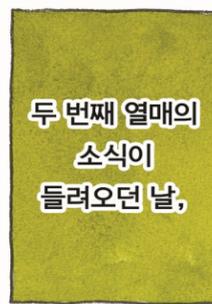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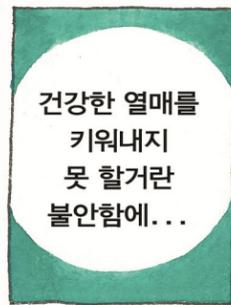
응모기간 2013. 4. 5. ~ 5. 30.

당첨자발표 2013. 6. 28.(별별신문 9호, 개별통보)

경품내용 휴가비 10만원(1명), 휴가비 5만원(2명) 총 3명

응모방법
-업소 생활 에피소드, 연애담, 소설, 수필, 시, 만화(A4 1~2장 이내)
-별별신문 메일(eloom2003@naver.com)이나 우편(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2-12번지 5층)으로 보내주세요.
-제출시 연락 가능한 곳을 표기(핸드폰번호, 카톡아이디, 이메일주소 등)

별
별
신
문



숲 이야기 마침

몸에 대한 기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여러 여성의 상황은 다르지만 이야기의 무게감이 같은 순간은 낙태 수술 당시의 느낌이다. 주변의 시선은 여성이 쉽게 낙태할 것이라는 억측 속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배제, 두려움, 불신 등을 드러낸다. 낙태를 하는 여성은 기본적으로 죄의식을 요구 받으며, 낙태의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 지독하게 내밀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숨은그림찾기처럼

공통적으로 겪은 시간과 경험이 숨어있다. 그녀들의 이야기가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

-이 만화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있잖아... 나 낙태했어>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있잖아... 나 낙태했어>의 주인공들이 낙태의 경험을 간단하게 적은 것을 소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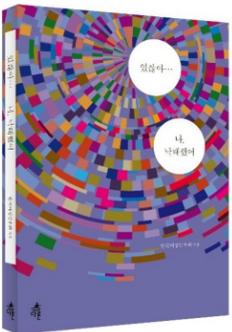
나에게 낙태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 나에게 낙태는 “성장”이다 / 나에게 낙태는 “올가미”이다 / 나에게 낙태는 “나의 일부”이다 / 나에게 낙태는 “어쨌든 보듬어야 할 기억”이다

별별 신문 독자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다. 간단하게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다음 호에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 보고자 한다.

“나에게 낙태는 이다”

나에게 낙태는 어떤 느낌과 경험이었는지, 빈칸에 넣을 짧은 말이나 사연을 보내 주세요~ 보내실 때는 “따옴표” 안의 문장을 다 적어 주시고 이유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문자 010-8230-6279 트윗 @bleuthink)

함께 나눌 책을 소개합니다.



<있잖아... 나, 낙태했어>

25명 여성들의 솔직하고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은 책,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기에 말해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여기 있다. 낙태 문제에서 남자들은 왜 쏙 빠지는가, 안전한 피임과 유산 후 몸 챙기기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지음, 도서출판 다른.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침묵을 깨 친족 성폭력 생존자의 생생한 자기 고백. 9년의 성폭력, 아빠라는 이름의 가해자, 사회라는 이름의 공모자, 그 지옥에서 탈출해 써내려간 반짝반짝 빛나는 생존과 치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올해 38 여성의 날에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은수연 지음, 도서출판 이매진



<꽃을 던지고 싶다>

아동기부터 수 차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25년 만에 펜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수기는 흔치 않다. 끔찍한 기억을 되돌린다는 것, 다른 이들과 나눈다는 것, 그 자체가 투쟁이다. 투쟁에서 그치지 않고 치유로 확장하는 글쓰기. 너울 지음, 도서출판 르네상스.

[숨]

-3월 7일 서울 시청 시민청의 ‘여성의 날’ 행사

올 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의 여성의 날 행사는 3월 8일 당일 치러지는 기념식과 3월 7일 시민난장이 따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난장’ 부스는 다양한 여성 이슈들로 가득했는데요.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이어트와 성형 압박에 대한 문제제기,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응원과 지지의 공 던지기,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알리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양케이트 등 다채로운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3월 8일 보신각에서의 ‘여성의 날’ 행사



>3.8여성대회의 다양한 피켓문구(출처:사회주의노동자신문)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9개 단체가 주최하는 3월 8일 당일의 여성의 날 행사는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했는데요. 여성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 결혼/출산/임신중지 결정은 여성의 권리, 불안정 노동 철폐, 성소수자 권리보장, 감정노동과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노동’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입 모아 외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캐 나 다 2 월 1 4 일 여 성 추 도 행 진

매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캐나다에서는 특별한 행진이 있습니다. 이 행진은 1991년 밴쿠버의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Downtown Eastside)라는 지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집결지인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Downtown Eastside)의 여성들은 캐나다의 원주민 차별, 여성차별 및 폭력, 마약과 성산업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넘어 적절한 보호 없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하기 까지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죽음이 증가하자 그들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떠난 자의 빈자리를 애도하고 함께 기리는 자리를 만들었고 이것이 발렌타인데이의 행진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알려진 실종되고 살해당한 여성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2월 14일 여성추도 행진(The February 14th Women’s Memorial March)은 차별과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성들을 기억하며 슬픔을 나누고 지금도 계속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합니다. 캐나다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Downtown Eastside) 여성의 삶에 얽힌 폭력과 죽음,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여성의 연대가 105주년 38 여성의 날 행사에 울려 퍼졌던 여성들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받았다면 내년 2월 14일부터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억울한 폭력과 죽음을 겪는 전 세계의 여성들을 생각하고 함께 서로의 힘을 나누면 어떨까요?[유나]

내용 참고

<http://womensmemorialmarch.wordpress.com/>(추도행진언론보도사이트)

<http://cafe.naver.com/voice2008/1799>(서부비정규노동센터 3월 소식지)

[여성관련 뉴스]

여성 이슈

3 . 8 여 성 의 날 스 케 치

지난 3월 8일은 10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방직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뉴욕시로 행진한 뒤 1910년부터 이러한 여성들의 움직임을 전 세계가 한 날에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3월 7일, 8일 이틀에 걸쳐 있었는데요. 별별신문 기자단도 두 행사에 참여했답니다! 38 여성의 날, 어떤 여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둘러볼까요?

고마담의 고민살롱



“아프다는 것을 느껴야 안심이 되요.”

자해는 더 이상 위안을 주지 않는다

그녀는 말이 없다. 물어봐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 표정은 그렇지 않다. 경직된 몸짓, 벽만 뚫어지게 응시하는 불안한 눈,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듯 굳게 닫힌 듯한 말투. 그녀는 분명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상담시간을 잘 지키고, 와서 앉아있는 것은 그녀 마음 안의 갈등을 보여준다. 말을 할까 말까, 그래도 언젠가는 말을 하고 싶다는 마음. 말을 하고 싶어한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적막한 공기를 함께 버틸 수가 있다.

그 날도 그녀는 별 말이 없이 있다가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선생님 저 자해하고 있어요’란 문자를 보내왔다. 상담에서 자해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식의 자해를 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안심을 시켜서 빨리 자해를 멈추게 하는것이 우선이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속이 탄다. 그녀는 왜 내게 자해를 한다고 알렸을까. 분명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문자를 했던 것이다. 전화를 받지 않은 그녀에게 난 메시지를 보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문자를 남긴 것 같은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통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연락주세요’라고 보냈고 그녀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답문을 보내왔다. 그녀가 내 도움을 받아들인 것이다. 몇 통의 문자를 주고 받은 후에야 그녀와 전화가 되었고, 난 그 순간에 그녀 곁에서 자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자해는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녀는 늘 참고 지내야만 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다 내 탓이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늘 무기력했다.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회사에 있을 때는 밝은 척 해야 했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혼자 집에 와서 자해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해가 아닌 방식으로 자신이 느끼는 부당함과 화를 드러내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해를 하면서 화를 드러내지만 그 후에는 밀려드는 자책감, 웬지 모를 자신에 대한 미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과 싸우면서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은 그녀 자신에게 달렸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오랜 상담을 통해서 배워나갔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롭다고 느끼거나 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 해오던 자해는 중독이 되기 쉽다. 심지어는 술을 마시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해의 습관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벌하는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해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떤 문제로 힘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직접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자해 대신 다른 즐거운 쾌감을 주고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찾으셔서 그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도를 이제, 시작해보자![달래]

살살정보

두루 살리고 살피는 정보

봄 맞이 청소 7 가지 팁 !



1. 청소요령

젖은 신문지를 잘게 찢어서 바닥에 미리 깔아주고 빗자루질을 하게 되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청소도 쉽다.

2. 카페트 청소요령

촘촘한 머리빗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게 되면 카페트에 끼어있는 머리카락이나 실, 털 등을 손쉽게 뺄 수 있으며, 카페트에 묻어있는 때는 카페트에 소금을 조금 뿌리고 나서 닦게 되면 조그만 티끌들이 소금에 달라붙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다.

3. 창문 유리 청소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둘둘 만 다음 문지르고 마른 신문지를 작게 접어서 닦으면 유리가 깨끗하게 닦아진다.

4. 욕실 샤워기나 변기 안 쪽에 낀 물 때 제거 요령

식초에는 칼슘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식초 탄 물에 샤워기를 한 시간 정도 담가두거나 청소 솔에 식초를 묻힌 다음 변기 안 쪽을 닦아주면 물때가 깨끗하게 빠진다.

5. 김치통 플라스틱 통 냄새 제거

베이킹소다나 쌀뜨물 + 식초(또는 맥주)를 넣어서 반나절 냅두면 냄새가 싹 가신다. 뚜껑은 달아줍시다. 햇볕에 말려주면 건조, 살균 효과까지!

6. 냉장고 악취 제거

소독용 알콜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 구석구석 닦아주면 더러움은 물론 악취도 가신다.

7. 렌지후드 청소

기름때가 잔뜩 낀 렌지후드는 베이킹 소다를 팍팍 뿌려준다. 기름때가 불면 닦아낸다. 철망이 이중으로 되어있으니 열심히 칫솔로 문질러주자. + 후드 윗부분은 시금치 데친 물을 행주에 적셔 닦아내면 기름때가 속시원히 밀린다. 주방세제를 이용했을 때보다 비누기를 없애는데 용 안 써도 되니까 좋다.[용]

심리상담을 연결해드립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공공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 모두~~ 심리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심리상담가를 연결해드립니다.

010-8230-6279로 연락하시거나 문자 남겨주세요.